

한방 의료 선진화 이룬다

글 | 전만복 _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mbjeon@mohw.go.kr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모든 나라는 나름대로 고유의 전통의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 서양의학이 전파되고 발전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의 전통의약은 제도권 속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하게 되었다.

서양의학 보완·대체하는 전통의약

이와 달리 우리 나라는 우리의 민족의약인 한의약을 굳건히 지키는 노력을 해왔다. 물론 우리 나라의 한의약도 서양의학의 발전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랜 역사성과 더불어 뛰어난 효용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한의약은 서양학과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구사회도 전통의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서구, 북미 인구의 50% 이상이 대체의약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전통의약이 갖는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암이나 관절염 같은 만성·난치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현대 서양의학만으로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러한 한계를 대체 또는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이처럼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요의 증가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이 신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각국은 전통의약을 하나의 새로운 산업분야로 인식하면서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과 노력을 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WHO는 각 국에서 계승되어 오는 전통의약을 활용하여 각

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방법을 개발할 것과 전통의약을 현대 의료체계에 결합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1978), 이러한 내용을 WHO 총회의 결의안으로 채택(2003)한 바도 있다. 또한 2006년 WHO 총회에서 영국의 찰스왕세자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현대의학에 전통의학을 접목하여 통합해 가는 노력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기도 했다. 전통의학이 서양의학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보완·대체의약으로서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시행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통의약인 한의약을 제도권 의학으로서 유지·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뒤늦게 필요성을 인식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의약도 근세 이후 지금까지 임상중심의 사립한의과대학 위주로 육성되었으며, 그 결과 한의약이 난치성 질환 증가,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 고조, 과학화·산업화 등이 강조되는 21세기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2003년도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5년도에는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면서 우리 한의약의 세계화를 방향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2006~2010)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2010년까지 5년간 총 7천31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4대 분야(한방의료의 선진화, 한약관리 강화,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한방 R&D의 혁신) 12개 정책, 38개 과제를 집중 추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8년 국립 한의학대학원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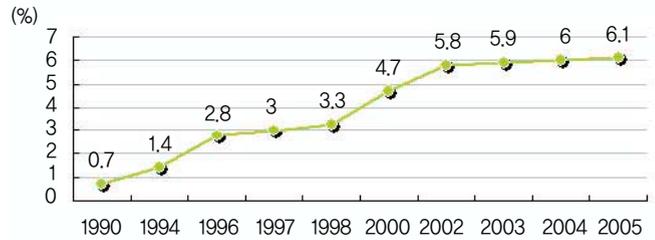
각 분야별 중점 추진내용을 보면 첫째, 한방의료의 선진화이다. 한방의료의 수준 향상 및 공급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평가제도 도입,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한방전문병원제도 실시,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 한방임상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WTO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까지 70병상 이상 전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약 55개 병원) 서비스 평가 제도를 도입·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방 의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한방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고, 한방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한·양방 협진체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방 HUB 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까지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전국 177개 보건소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교류 확대 및 정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한방 해외의료봉사활동, WHO 전통의학 표준화사업, 국제학술 및 기술교류사업, 남북 교류협력사업, 해외 한방병원 설치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동의보감의 원역(국역, 영역)을 추진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록도 추진하는 한편, 남북한간의 다각적인 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한약의 안전 관리강화이다.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위해물질 정밀검사대상을 확대(94품목→2010년 520품목)하고 국내산 한약재도 잔류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2008년)하며, 검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제조업소의 자가 품질 검사제도는 이를 폐지할 계획이다. 한약규격품의 각 품목별로 제조 및 포장기준을 마련(2006~2010년)하여 그 공정에 따라 제조·포장하도록 하고, 주요 한약재의 원산지 감별기준을 마련하며,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2007년)한다. 제조업소에 의한 제조품목을 확대(69품목→520품목)하고,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급여 중 한방진료비 비율



그리고 한약관리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약청의 한약 안전관리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한약재 관련부처의 상시 협조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한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셋째,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이다. 산·학·연이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경북한방진흥원건립(2007년 완공)을 시작으로 하여 광역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며, 약초 주생산지, 한약유통시설건립지역 등에 생산·유통·가공이 복합된 소규모 한방산업 지역클러스터의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효능 중심의 우수한약 품질기준(생산·재배, 제조·가공, 유통기준)을 개발하고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약재 생산거점 중심지로 재배단지를 지정하여 우수한약재의 종자와 종근을 보급하고, 재배기술과 제조·가공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한약재의 안전한 보관·유통을 위해 항온·항습의 저장 및 가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지원(5개소)한다.

또한, 한방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약제제에 대한 표준공정서와 전임상·임상실험 기준을 마련(2007~2009년)하고, 생산 독점권을 부여하며, 비방 및 우수경험방을 발굴하여 지식재산권보호와 산업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방제품 제조 활성화를 위해 한약성분 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고 표준화된 효능효과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제공(2008~2010년)할 계획이다

넷째, 한방 R&D의 혁신이다.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혁신하여 한방의료기관 및 한방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과제에 중점을 두고, 연구사업의 평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연구결과를 DB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의료인 및 연구자에게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의약산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기술개발연구를 시행하고,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증대 등을 위한 제형기술 개발도 연구할 계획이며, 한방 의료기기의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학 육성법에 근거한 5개년 종합계획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의학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선도해 가기 위한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2008년 3월 개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임상위주의 한의사 인력양성에 치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근본적인 취약점을 극복하고, 21세기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의 한의학보다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신약개발, 한방의료 기술의 체계화, 한의학의 세계화 등을 앞당김으로써 한의학이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되는 기틀이 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국립대학내에 설치될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명실상부한 한의학의 과학화 및 R&D의 산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양방 협진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다학제간 공동 연구를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체계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방의료 건강보험,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한편으로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수요자(환자)들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방 의료의 건강보험은 1987년 보험적용을 시작한 이후 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중에서 한방의료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한방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약제의 개선 등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범위가 협소하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문턱이 아직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한방건강보험개선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학이 과거 중국에서 유입된 중의약을 모태로 하고 있지만 400년 전 허준에 의하여 우리의 체질과 풍토에 맞는 한의학으로 재창조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근세 이전까지는 유일한 의



한약기구 약탕기(사진제공 = 연합뉴스)

약으로서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다. 2013년은 명의 허준이 동의보감을 발간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한의학의 역사성과 유용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10개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은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이끌어내어 한의학이 민족의학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동의보감의 국(國)·영(英)역, 신(新)동의보감 및 민족약초도감 편찬, 가칭 세계전통의약대회와 같은 국제 전통의약엑스포 개최,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기록문화 유산 등재, 한방웰빙 테마파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 속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한의약을 현대의학이 요구하는 근거중심의학으로 보다 발전시켜 과학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하며, 세계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과 유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함은 불문가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㉔



글쓴이는 한·미FTA지원국장, 청와대 사회정책행정관, 보험정책과장, 국제협력담당관 등을 지냈다.